

남원 평화의 집 시설폐쇄

거주 장애인 폭력 고발 행정처분 결정... 대응방안 등 모색

장애인거주시설인 남원 평화의 집이 시설폐쇄 된다.

남원시는 2016년 3월 15일 거주장애인 폭력으로 고발당한 평화의 집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시설폐쇄 행정처분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남원시는 시설폐쇄에 따른 문제점 발생과 대응방안, 향후계획을 마련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우선 시설폐쇄에 따라 보호자에게 타 시설 전원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한국복지시설협회 및 전국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전원 조치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또한 폐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잔류 거주장애인과 남원시 향후 대책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평화의 집에는 현재 22명의 거주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타 시설 입소를 위한 전원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입소비 납부부담 가중과, 전국 20여개의 유료시설이 만원인 상태

이다.

남원시는 생활이 어려운 거주장애인은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안내해 무료 시설에 입소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연말에 부안군에 새로 들어서는 시설에 장애인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이와 함께 탈 시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1동, 주간보호센터 1동을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이 팔덕면 백암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순창군 백암마을 주거환경 대대적 개선

군비포함 3억 쓰여져... 마을하수구 정비·CCTV 설치 등

순창군이 팔덕면 백암마을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군은 2016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비를 포함해 총 3억여원이 백암마을 주거환경 개선에 쓰여진다.

백암마을은 전북도 토탈관광 패스라 인이자 군의 대표관광지인 강천산 근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과 마을 공동시설, 자연경관 개선 시 순창군의 낙후지역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동체적 생활환경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지난달 백암마을 주민 공모계획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단계부터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주민주도·주민체감형 지원사업을 발굴했다. 마을안길 하수구정비 등 8개 분야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군은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 용역을 마치고 백암마을 주민들의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내년 11월말까지 마무리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할 계획이다.

우선 마을진입로 및 안길확포장, 보

행안전 가드레일부터 설치한다.

또 생활편익시설로 마을하수구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마을담장 헛터도 조성해 주민들이 공동체적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을진입로에는 조경수를 식재하고 마을 경관저해시설 철거 등을 통해 경관개선은 물론 마을내 도랑 정비 등을 통해 생태환경도 조성하게 된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백암마을 "주거취약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자연경관 유지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며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위성측량 실시

지적기준점 80여점 대상

임실군은 오는 22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지적기준점 80여점을 대상으로 조사 및 위성측량을 실시한다.

이번 측량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함에 따라 전년도점 담당자 및 시군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16명)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의 지원을 받아 위성측량을 추진되며,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계획이다.



개면 6만4,019필지를 대상으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목표인 16만1,216필지를 달성할 경우 전체 대상필지의 99%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변환 사업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측지계는 지구의 공간

정보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지난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식도락 체험마을 '눈길'

대전서 30여명 방문... 향토음식 활용 체험 즐겨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기차를 이용한 마을관광 프로그램으로 도시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20일 고창군 식도락 체험마을 중 한 곳인 고창 성내면 조동마을에 대전 충남여중에서 30여명의 학생들이 방문했다.

충남여중 학생들의 이번 체험 여행은 고창군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단장 이승호)과 코레일 전북본부 정읍관리역(역장 최승진)의 '지역 향토음식을 활용한 체험·관광'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원에서 산행도 하면서 마음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다"며 "나중에 부모님과 고창여행을 또 오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 이승호 단장은 "식도락마을 투어프로그램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족단위, 외국인 등 다양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창군의 대표 관광지인 선운산도립공원, 고창읍성, 세계유산 고인돌유적 탐방 등 여러 코스가 포함되어 있어 참여하는 분들이 후회 없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사라져 가는 향토음식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 식도락마을체험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창읍 호암마을(도토리묵과 덕덕주먹밥), 고창읍 화산마을(산나물밥상), 아산면 마명마을(우거지장어곰탕), 공음면 중여마을(초식잡백숙과 마카추어탕), 상하면 송림마을(조기찌개 노랑조개 칼국수), 대산면 상금마을(무팔밥 백반), 성내면 조동마을(닭숯불구이 선비밥상), 부안면 연기마을(콩나물밥정식)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군은 식도락마을 관광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 도시민이 찾아오는 식도락마을을 구축해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여름 휴가 순창에서 보내기 운동

순창군과 지역사회단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여름 휴가는 순창에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군공무원과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순창군지역본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순창군지부 회원 등 70여명이 참여해 여름 휴가는 지역에서 보내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참여자들은 순창 IC와 지역 다중이용시설, 지역 관공서, 상가 등을 방문해 홍보지를 나눠주며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고 친척 친구 등 지인에게 순창 휴가지를 소개하고 휴가물품도 순창에서 구매해 줄 것 등을 홍보했다.

허관욱 지역경제 과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기차이나 부족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외지로 휴가를 떠나 지역 상권이 더욱 어렵다고" 말하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친인척 등이 순창에서 휴가를 보내고 소비도 순창에서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블랙프루트 기술 이전식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무주군, 부안군과 연계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블랙프루트(Black Fruit)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서 개발한 복분자 크런치, 오디 크런치, 머루 크런치, 머루드레싱, 혼합음료 기술이전식을 개최했다.

기술이전 및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앞으로 제품의 판매지원과 블랙프루트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공동마케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참여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해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과 블랙프루트진흥사업단 소평물 입점·판매 및 국내 박람회 공동 참가 등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블랙프루트진흥사업단의 사업설명회도 함께 열려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상품을 활용한 공동마케팅 이해도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동계면 원스톱 서비스 행정 실시

주요정책·현안사항 등 소개

순창군 동계면(면장 김용남) 관계기관장들이 마을좌담회를 통하여 원스톱 서비스 행정을 실천해 화제다.

김용남 동계면장은 정성균 군의원, 양준섭 동계농협장, 박원귀 파출소장, 이의섭 농민상담소장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30개 전 마을을 방문해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의견 수렴의 시간도 가졌다.

김 면장은 민선6기 상반기동안 이뤄낸 국가예산 1,193억원 확보, 주요수상 26건, 4년 연속 예산규모 3000억원 유지, 장류분야의 투자선도 시범지구 선정, 건강장수마을 기반 확대 등의 주요성과들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문체부에서 발표한 지역문화지수에서 순창군이 전국 군 단위 중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성적을 거

두면서 문화 융성 지역으로 거듭났음을 강조했다.

또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들린순창과 관련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다 같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호우피해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안사항으로는 최근 산 근접지에 피해를 입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 인상부과, 밥 전용비료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 대책,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 등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끝으로 마을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주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면정 행정의 면모를 보여줬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일본뇌염 방역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일본뇌염 예방을 위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홍보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물웅덩이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모든 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일부 뇌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뇌염은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이나 일부는 뇌염으로 진행해 고열, 두통, 복통 및 경련, 혼수, 의식장

애 등의 신경과적 증상을 일으켜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감염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모기회피 요령과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만12세 아동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 생백신은 총2회(1차~2차:생후12~36개월), 사백신은 총5회(1차~3차:생후 12~35개월, 4차:만16세, 5차:만12세) 접종을 받을 것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홍보하면서 특히 사백신의 경우 4, 5차 추가접종률이 매우 낮은 편으로 충분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6세와 만12세에 받는 일본뇌염 추가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